

## 화교, 중국조선족, 한국 청소년들의 자아개념발달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ison of Self-concept in Chinese Immigrant,  
Korean-Chinese, and Korean Adolescents\*

이사라(Sarah Lee)<sup>1)</sup>

박혜원(Hyewon Park-Choi)<sup>2)</sup>

### ABSTRACT

The influence of peer relationships and teacher's support on the development of self-concept was assessed in Chinese immigrant, Korean-Chinese, and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ubjects were 205 Chinese immigrants in Seoul, Korea, 256 Korean-Chinese in Shenyang, China, and 368 Korean adolescents in Seoul and Ulsan, Korea. Data were analyzed by ANOVA,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showed that the self-concept score of Korean-Chinese was highest followed by Chinese immigrants in Korea, and Korean adolescents, in that order. The self-concept of Chinese immigrant adolescents was influenced by peer relationships, of Korean-Chinese by teacher's support, of Korean adolescents by both peer relationships and teacher's support.

**Key Words** : 자아개념(self-concept), 화교(chinese immigrants in korea), 중국조선족(korean-chinese).

### I. 서 론

인간행동연구를 위한 기본적 단위이자 인간행동을 예측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자아개념을 들 수 있다. 자아개념을 다른 사람의 지각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Cooley, 1912)과 한 인간의 내적 잠재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Horney, 1950), 자아개념을 인간의 내적 본성 혹은 기본적인 본성이라고 간주하는 사람과 자아개념을 인간의 동인으로 간주하는 사람(Fromm, 1947)

\* 본 논문은 2003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2-HM2001).

<sup>1)</sup>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시간강사

<sup>2)</sup> 울산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ewon Park-Choi, Dept. Child & Family welfare, Ulsan University

E-mail : hyewonc@ulsan.ac.kr

등 자아개념에 관한 논의는 철학, 심리학, 그리고 심리치료의 이론에서 핵심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자아개념발달은 한 개인의 관계된 많은 외적 자극으로부터 발달된다. 감각지각을 통해서 자극되는 신체인식과 신체 영상은 자아개념과 자아체제가 형성되는 기본적 핵심요소이고, 언어는 자아와 타인의 분화과정을 도우며, 중요한 타인들 - 동료집단, 부모, 교사 등 - 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아개념의 자원이 되고, 자아존중감은 칭찬을 통해 점차 발달한다(송인섭, 1998). 한 개인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그리고 개인이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때 긍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된다. 만약, 중요한 타인, 즉, 부모, 동료, 교사, 친구 등이 한 개인의 행동과 심리적 태도 등에 대해 조롱하고 비판하면, 결과적으로 부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된다. 따라서 개인 또는 집단의 자아개념에 대한 정보는 그 개인과 집단이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관계의 특성에 대한 파악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자아의 분화는 걸음마기 이후 아동에게서 분명히 나타나며, 유아기를 지나는 동안 표상능력이 보다 발달되어 자아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어린 아동들의 자아개념은 사실 비현실적이다. 아동이 나이를 먹게 됨에 따라 자신의 상대적인 강함과 약함에 대해 좀더 사실적인 평가를 얻으며, 이 정보는 자신의 자아개념으로 통합된다(Marsh, Barnes, Cairns, & Tidman, 1984). 또한 Erikson의 발달과업단계 중 청년기 과업의 이슈는 확고한 정체감 수립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아개념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를 청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설명한다. 즉, 자아개념에 대한 화두의 대상은 주로 청소년기로 볼 수 있다.

한국 화교<sup>1)</sup>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 해 온 기간이 이미 한 세기를 훨씬 지났다. 한국 화교는 세계 화교사에서 매우 독특한 집단이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화교들은 대부분 그곳 거주국에 동화되어 현지국민이 된 반면, 한국 화교는 한국에서 거주한지 121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외국인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정부가 시행해온 반 동화정책(예 : 국적법에서의 속인주의, 반 이민정책 등)을 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거의 전무한 상태였으나, 최근 몇 가지 국내외적인 상황과 맞물리면서 국내 화교의 존재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장수현, 2001). 근래 화교가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화교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 IMF 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위기의 돌파구로 해외자본 유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동남아 지역의 유동적인 화교자본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높아졌고 그와 함께 해외 화교들과의 연결고리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내 화교들의 존재가 크게 부각되었다. 최근,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서울에서 제8차 세계 화상대회가 개최되는 것을 보아도 화교의 경제적인 힘은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조선일보, 2005년 9월 12일자). 이와 동시에,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서 화교가 갖는 중요성이 여러 지자체에 의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한 지방 도시들은 중국의 거대 인구를 끌어들

1) 화교란 중국 국적을 가진 해외거주중국인들을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주재국의 귀화정책에 따라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들도 상당수 있으므로, 혈통만을 기준으로 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느냐 혹은 국적도 함께 고려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보느냐에 따라 화교의 수 및 범주가 크게 차이를 보일 수 있다(이윤희, 2004).

일 수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 필요성을 주목했고, 화교집단 거주지에 대한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장수현, 2001). 이렇듯, 한국화교의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것에 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는 현재 매우 미비하다. 한국의 화교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의 화교연구가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면, 한국의 화교연구는 아직까지 뚜렷한 연구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김경국·최승현·이경복·최지현, 2003). 1945년 일제패망 이후 상당수 한국 화교들은 제 3국으로 재이민을 떠났고 남은 한국 화교들은 한국사회의 변동에서 힘든 삶을 지낼 수밖에 없었으며, 이들을 향한 한국의 사회적 관심은 전무한 상태였다. 1970년대에 한국 사회에서 출생하고 교육받은 젊은 화교세대가 성장함에 따라 한국 내 한국화교에 대한 관심은 점차 연구의 틀을 갖추기 시작했으나, 1990년대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특히 한국 화교의 아동 및 청소년발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김경국 외, 2003). 재한 화교문제는 한국 민족주의 성격과 관련하여 자주 거론되는 문제 중 하나이다. 화교자본이라는 말이 범 지구적으로 통용될 정도로 재외 중국인(화교)들은 세계도처에서 경제적 성취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유독 재한 화교들만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약자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을 한국 민족주의의 배타성에서 찾는 것은 대중적 차원에서 이미 일반화 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화교관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재한 화교에 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그나마 화교의 정체성이나 화교이주와 정착사, 화교 자본의 성격 등 화교 집단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다(전

우용, 2003).

한편, 19세기 중반부터 시작한 우리나라 이민의 역사는 외국의 장구한 이민역사에 비교해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1999년 조사된 바에 의하면 현재 140여개 국에 530만 명의 한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이 수는 남북한 인구인 약 7천만 명의 8퍼센트에 달하는 큰 수인데, 해외동포의 규모면에서 중국, 이스라엘,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4위로 재외동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조복희 외, 2005). 이러한 해외거주 한민족 동포들은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귀중한 밑거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많은 재외동포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많은 한민족이 집단 거주하는 곳은 중국으로, 현재 중국에는 2,043,578명(외교통상부, '98.7 기준)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조선족'이라 불린다. 중국 조선족들은 중국 내의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12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민족이며, 중국의 소수 민족정책으로 길림성에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장백 조선족 자치현이 있으며 그 밖에 많은 자치향을 갖고 있다. 이들 조선족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관심은 많이 부족한 편이나, 최근 중국 조선족의 이중언어발달에 관한 연구(박혜원·원영미·이귀옥, 2003; 이귀옥·전효정·박혜원, 2003; 이귀옥·전효정·박혜원·강완숙·장미자, 2004)와, 중국 조선족 아동의 사회성·정서발달과 사회적 영향요인에 관련한 연구들(박민정·박혜원, 2005; 박혜원·이사라, 2005; 이사라·박혜원, 2005; 조복희·이주연, 2005; 조복희·이귀옥·박혜원·이주연, 2005; 조복희·박태수·한세영, 2004)을 통해 이들 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기본적인 학문적 연구가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효용의 관점이든 법적 지위의 관점이든, 국내 화교에 대한 최근의 관심이 올바른 정책적 실천 방안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화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국 조선족은 구소련으로 이주한 동포들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이념의 장벽으로 인해 한국과의 교류가 불가능했었지만 오늘날 중국과 한국과의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 조선족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분단된 남북한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화교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기초적 자료 제시 및 해외거주 한민족 동포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한국 화교가정에서 출생하여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화교청소년들의 자아개념과, 한국화교와 유사한 환경적 변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 청소년, 그리고 한국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는, 본국에 태어나 자국민으로 살아가는 청소년과 자기 조국을 떠나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봄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화교, 중국 심양 조선족, 및 한국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화교, 중국 심양조선족, 및 한국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인 또래, 교사의 영향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화교, 조선족, 한국의 청소년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과 경인지역 화교 중·고등학교와 중국 심양 조선족 중·고등학교, 그리고 한국의 중·고등학교를 찾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sup>2)</sup>. 화교 중·고등학생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 소재 한국 한성 화교 중·고등학교에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8학급에 250부를 배포한 후 일주일 후에 수거하였는데, 남학생 106명, 여학생 99명으로 총 205명(회수율 82%)이 회수되었다<sup>3)</sup>.

중국 조선족 중·고등학생을 조사하기 위해 중국 심양 요녕성에 위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학교 교사를 통해 배부한 결과, 총 256명(남 : 118명, 여 : 138명)이 회수되어 85.3%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한편, 한국 자료는 서울과 울산에서, 중·고등학교 학생, 총 400명을 대상으로 질

2) 본 연구에서 청소년을 조사하기 위해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조사하였다. 부모의 국적은 조선족인 경우에는 모두 중국 국적이었고 화교의 경우에는 부모에 대한 설문조사 자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정보를 얻지 못하였다. 중국 조선족의 경우 제 1언어는 중국어이였으며, 화교의 경우 제 1언어는 한국어로 나타났다.

3) 화교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소재화교학교는 한국한성화교소학교, 한국 한성 화교 중고등학교,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가 있고, 경기도 의정부화교소학교, 수원화교중정소학교가 있으며, 인천지역에는 인천화교소학교, 인천화교 중산 중고등학교가 있다. 이 중에서 화교 중고등학교로는 서울의 한성 학교와 인천의 중산학교가 있는데, 인천의 중산학교는 총 학급 수 6학급으로 약 180명의 중고생이 있으나, 매우 폐쇄적이어서 설문지 조사가 불가능하였다. 또한 부모님에 대한 조사는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서울지역학교도 협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만 얻을 수 있었다.

문지를 배부하여 수집하였다. 배부한 후 일주일 뒤 총 368명(남 : 195명, 여 : 173명)이 회수되어 92%의 회수율을 보였다.

## 2. 측정도구

### 1) 자아개념

자아개념의 측정도구로 Harter(1988)의 청소년용 자기-지각 검사(Self-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용 자기-지각 검사는 총 6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개 영역(학업능력, 사회적 수용, 운동능력, 외모, 전반적 자기가치감, 우정, 직업능력, 낭만적 매력, 행동)을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61문항을 요인분석 한 후 신뢰도가 높은 5개 하위영역을 선별하여 총 47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고, 선별된 요인은 학업, 운동, 외모, 행동, 자기가치감이다.

각 요인을 살펴보면, 학업 자아개념은 학업수행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며, 자신이 학교 수업시간에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학교 숙제를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학교 공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동 자아개념은 자신이 운동을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새로운 경기를 잘 하는지 등을 측정한다. 외모 자아개념은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지, 몸매가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등 자신의 외모에 대한 생각을 묻고 있으며, 자기가치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지, 자신의 생활방식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측정하였다. 행동 자아개념은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곤란을 겪은 적이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지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언제나 그렇다”까지 1점부터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아개념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alpha=.52\sim.85$  이었다4).

### 2) 또래관계

청소년의 자아개념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또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구자은(2000)이 사용한 사회적지지 문항 중에서 또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4문항을 선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학생들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4문항을 요인분석 한 결과 친밀성 2문항과 수용성 2문항으로 구분되었다. 문항내용은 친구와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지, 친구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친밀하게 느껴지는지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점부터 5점까지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또래관계에 대한 문항의 신뢰도는  $\alpha=.52\sim.69$  로 나타났다5).

### 3) 교사와의 관계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와의 관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보기 위해 Hare(1985)의 자아존중감 문항(Hare Self-Esteem Scale : HSS)중에서 학업자아개념 10문항을 사

4) 요인분석결과 각 요인별 Cronbach's  $\alpha$  계수는, 학교 중·고등학교의 경우, 외모 .85, 운동 .84, 학업 .71, 행동 .73, 자기가치 .70이었고, 중국심양조선족의 경우, 외모 .55, 운동 .64, 학업 .68, 행동 .79, 자기가치 .61 이었고, 한국의 경우, 외모 .78, 운동 .52, 학업 .70, 행동 .72, 자기가치 .66 이었다.

5) 요인분석결과 각 요인별 Cronbach's  $\alpha$  계수는, 학교의 경우 친밀성 .63, 수용성 .69 이었고, 중국 심양 조선족의 경우, 친밀성 .64 수용성 .52 이었으며, 한국의 경우, 친밀성 .66, 수용성 .69 이었다.

용하였으며, 이에 대해 학생들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중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7문항을 선별하여 요인분석 한 결과 교사의 지지 5문항과 교사의 평가에 대한 2문항으로 구분되었다. 문항 내용은 담임선생님은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주시는지, 선생님이 편안하고 친밀하게 느껴지는지, 선생님들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만족스러워 하시는지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것을 나타내었다.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문항의 신뢰도는  $\alpha=.54\sim.94$ 로 나타났다<sup>6)</sup>.

### 3. 조사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2005년 6월 서울 소재 화교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사의 감독 하에 학생들이 설문지를 완성한 후 연구자가 수거하였다<sup>7)</sup>. 한편, 중국 조선족 자료 수집을 위해, 2003년 12월 초에 중국 심양에 있는 서탑, 만용 중·고등학교로 질문지를 보냈다. 그곳의 대부분 학생들은 한국어를 제 1국어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항은 한국어로 기록되었다. 질문지는 조선족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배부되어

학교교사의 지도하에 완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들은 2003년 12월 중국 심양을 방문해 완성된 질문지를 수거하였다. 한국자료도 같은 시기에 서울과 울산의 중·고등학교에서 수집되었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 PC+Vers. 11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각각의 의미 있는 영역으로 문항을 구분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자아개념은 총 5개 요인으로, 또래관계는 2개 요인으로, 교사와의 관계는 2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화교 및 중국 조선족, 그리고 한국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자아개념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들, 즉,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와 상대적 영향력을 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 및 단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sup>8)</sup>.

## III. 결 과

### 1. 화교, 중국 심양 조선족, 한국 청소년의 자아개념 비교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하여 화교, 중국 심양 조선족, 그리고 한국 청소년의 하위요인별 자아개념에 대해 일원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외모자아개념에서는 화교와 한국은 차이가 없고 두 집단에 비해 심양조선족 청소년들

- 6) 요인분석결과 각 요인별 Cronbach's  $\alpha$  계수는, 화교의 경우, 교사의지지 .76, 교사의 평가 .94이었고, 중국 심양 조선족의 경우, 교사의 지지 .72, 교사의 평가 .76이었으며, 한국의 경우 교사의 지지 .75 교사의 평가 .54였다.
- 7) 설문지의 경우 세 집단 모두 한국어를 사용하였다. 화교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청소년이 사용하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지에 사용된 언어는 모두 한국어였으며, 조선족의 경우에는 몇 가지 단어가 한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조선족이 사용하는 단어들로 변경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 8) 중국심양조선족과 화교 청소년에 대한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많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하여 분석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여 중·고등학생을 함께 분석하였다.

〈표 1〉 화교, 조선족, 한국 청소년의 자아개념 비교

| 자아개념 | 집단구분  | N   | M    | SD  | F        | Scheffé |
|------|-------|-----|------|-----|----------|---------|
| 외 모  | 화교    | 197 | 3.02 | .96 | 6.69**   | A       |
|      | 심양조선족 | 142 | 3.25 | .82 |          | B       |
|      | 한국    | 319 | 2.95 | .71 |          | A       |
| 운 동  | 화교    | 199 | 2.96 | .94 | 3.02     |         |
|      | 심양조선족 | 148 | 3.09 | .73 |          |         |
|      | 한국    | 325 | 2.88 | .80 |          |         |
| 학 업  | 화교    | 194 | 2.97 | .05 | 17.73*** | A       |
|      | 심양조선족 | 159 | 3.35 | .06 |          | B       |
|      | 한국    | 331 | 3.33 | .04 |          | B       |
| 행 동  | 화교    | 197 | 3.23 | .06 | 7.96**   | A       |
|      | 심양조선족 | 159 | 3.39 | .05 |          | B       |
|      | 한국    | 314 | 3.15 | .02 |          | A       |
| 자기가치 | 화교    | 196 | 3.04 | .05 | 30.85*** | A       |
|      | 심양조선족 | 158 | 3.23 | .05 |          | B       |
|      | 한국    | 322 | 2.73 | .04 |          | C       |

\* $p<.05$  \*\* $p<.01$  \*\*\* $p<.001$

의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자아개념에서는 심양조선족과 한국이 화교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자아개념에서는 화교와 한국 청소년에 비해 심양조선족 청소년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가치감에서는 심양조선족 청소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화교, 한국 청소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화교, 중국 심양조선족, 한국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 또래, 교사- 의 상대적인 영향력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화교 청소년의 자아개념, 또래, 교사와의 상관관계를 보았고,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

의 상대적 영향을 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화교 청소년들의 외모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또래수용성( $\beta=.25, p<.001$ )과 교사의 평가( $\beta=.16, p<.05$ )로 나타났고, 운동자아개념은 또래수용성( $\beta=.17, p<.05$ )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자아개념은 또래수용성( $\beta=.22, p<.01$ )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가치감은 또래수용성( $\beta=.28, p<.01$ )과 교사의 평가( $\beta=.23, p<.01$ )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화교 청소년의 외모, 운동, 행동, 자기가치감은 또래친구들이 수용적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화교청소년의 자아개념 하위요인 전반에 또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모와

9) 부록에 상관관계표 제시

〈표 2〉 화교 청소년들의 자아개념 하위요인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Method=Stepwise)

| 종속변인              | 독립변인   | B   | $\beta$ | R <sup>2</sup> | $\Delta R$ | F        |
|-------------------|--------|-----|---------|----------------|------------|----------|
| 외모자아개념<br>(N=194) | 또래수용성  | .28 | .25**   | .11            | .03        | 10.52*** |
|                   | 교사의 평가 | .22 | .16*    |                |            |          |
| 운동자아개념<br>(N=198) | 또래수용성  | .19 | .17*    | .03            | .03        | 5.25*    |
| 행동자아개념<br>(N=196) | 또래수용성  | .20 | .22**   | .05            | .05        | 9.10**   |
| 자기가치감<br>(N=194)  | 또래수용성  | .20 | .28**   | .13            | .05        | 13.30*** |
|                   | 교사의평가  | .25 | .23**   |                |            |          |

\* $p < .05$  \*\* $p < .01$  \*\*\* $p < .001$

자기가치감에서는 또래수용성과 더불어 교사의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국 심양조선족 청소년의 경우, 외모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사의 지지( $\beta = .32, p < .001$ )로 나타났고, 학업자아개념은 교사의 지지( $\beta = .20, p < .05$ )와 또래수용성( $\beta = .18, p < .05$ )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자아개념은 교사의 지지( $\beta = .26, p < .01$ )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가치감은 교사의 평가( $\beta = .20, p < .05$ )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 심양조선족 청소년의 외

모, 학업, 행동, 자기가치감은 교사가 지지적이고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 심양 조선족 청소년의 자아개념 하위요인 전반에 교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자아개념에서는 교사의 지지와 더불어 또래가 수용적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모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사의 지지( $\beta = .23, p < .001$ ), 또래 수용성( $\beta = .18, p < .001$ )과 또래 친밀성( $\beta = .09, p < .05$ )으로 나

〈표 3〉 중국심양조선족 청소년들의 자아개념 하위요인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Method=Stepwise)

| 종속변인              | 독립변인  | B   | $\beta$ | R <sup>2</sup> | $\Delta R$ | F        |
|-------------------|-------|-----|---------|----------------|------------|----------|
| 외모자아개념<br>(N=143) | 교사의지지 | .33 | .32***  | .10            | .10        | 16.23*** |
| 학업자아개념<br>(N=160) | 교사의지지 | .20 | .20*    | .08            | .03        | 6.80**   |
|                   | 또래수용성 | .19 | .18*    |                |            |          |
| 행동자아개념<br>(N=157) | 교사의지지 | .19 | .26**   | .07            | .07        | 11.62**  |
| 자기가치감<br>(N=158)  | 교사의평가 | .18 | .20*    | .04            | .04        | 6.38*    |

\* $p < .05$  \*\* $p < .01$  \*\*\* $p < .001$



〈표 4〉 한국 청소년들의 자아개념 하위요인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종다회귀분석  
(Method=Stepwise)

| 종속변인              | 독립변인  | B   | $\beta$ | R <sup>2</sup> | $\Delta R$ | F        |
|-------------------|-------|-----|---------|----------------|------------|----------|
| 외모자아개념<br>(N=309) | 교사의지지 | .19 | .23***  | .08            | .01        | 17.82*** |
|                   | 또래수용성 | .18 | .18***  |                |            |          |
|                   | 또래친밀성 | .07 | .09*    |                |            |          |
| 학업자아개념<br>(N=321) | 교사의지지 | .16 | .17***  | .07            | .02        | 16.72*** |
|                   | 또래수용성 | .20 | .19***  |                |            |          |
|                   | 또래친밀성 | .14 | .16***  |                |            |          |
| 행동자아개념<br>(N=316) | 또래친밀성 | .09 | .18***  | .03            | .03        | 19.80*** |
| 자기가치감<br>(N=319)  | 교사의평가 | .18 | .16***  | .08            | .01        | 17.10*** |
|                   | 또래친밀성 | .11 | .14**   |                |            |          |
|                   | 교사의지지 | .09 | .11**   |                |            |          |

\* $p < .05$  \*\* $p < .01$  \*\*\* $p < .001$

타났고, 학업자아개념은 교사의 지지( $\beta=.17, p<.001$ )와 또래수용성( $\beta=.19, p<.001$ ), 또래 친밀성( $\beta=.16, p<.001$ )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자아개념은 또래 친밀성( $\beta=.18, p<.001$ )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가치감은 교사의 평가( $\beta=.16, p<.001$ ), 또래 친밀성( $\beta=.14, p<.01$ ), 교사의 지지( $\beta=.11, p<.01$ )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청소년의 외모, 학업, 행동, 자기가치감은 또래와 친밀할수록, 또래가 수용적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외모, 학업, 자기가치감에서는 또래와의 관계와 더불어 교사의 지지와 평가가 긍정적인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화교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아개념 하위영역에서 또래의 영향이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 심양조선족에서는 교사의 영향이 대부분의 자아개념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청소년의 경우, 또래와 교사의 영향이 자아개념 하위영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 청소년과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청소년 및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개념의 평균점수 및 자아개념 하위요인들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변인으로 교사와 또래의 영향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교, 중국 심양 조선족과 한국 청소년의 자아개념을 비교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한 결과, 외모자아개념에서는 화교와 한국은 차이가 없고 두 집단에 비해 심양조선족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자아개념에서는 심양조선족과 한국이 화교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자아개념에서는 화교와 한국 청소년에 비해 심양조선족 청소년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가치감에서는 심양조선족 청소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화교, 한국 청소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 심양조선족 청소년들이 자아개념의 하위요

인들에서 대부분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화교, 한국 청소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조선족과 한국 아동 및 청소년의 자아개념을 비교한 이전 연구에서(이사라·박혜원, 2005), 아동과 청소년 모두 중국 조선족이 한국보다 자아개념 점수가 높게 나타났었다. 본 연구 분석결과에서도, 중국 조선족의 자아개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화교, 한국 청소년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력신장으로 전 세계 경제와 정치적 영향력이 거대해진 중국 중화사상의 영향력에 대한 고려를 요구한다. 동양·아시아·황인종을 통틀어 중국의 확장으로 해석하고 이것이 곧 중화(中華)이며, 중국과 서양의 구도로 세계를 재구도화하려는 중국의 오랜 사상적 가치를 중국인들은 부지불식간 지니고 있을 수 있다(이성규, 1992). 이러한 중화사상은 중국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중국 조선족의 자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화교 역시 본토 중국사회의 문화와 교육의 영향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한국 화교는 세계화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른 위치를 갖고 있다. 먼저, 세계화교는 중국으로부터는 포기된 백성, 이민 수용국 으로부터는 돼지새끼라 불리는 하급노동자의 신분으로 그 역사를 시작했지만, 한국 화교는 이민송출국인 중국의 정치적 비호아래 상국(上國)국민의 신분으로 그 역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세계화교의 역사는 중국의 세계자본주의체제 편입과정에서 자본주의국가와 이민 집단 간의 경제적 욕구에 의해 진행되었지만, 한국화교의 역사는 한·중간의 전근대적인 종번(宗藩)관계 속에서 청국정부의 종주권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아래 진행된 측면이 강하다. 마지막으로, 세계화교사회의 형성은 주로 중국이 세계자본주의체제로 편입되는 초기 단계인 19세기 초·중반에 시작되었지만,

한국화교사회는 중국에 대한 서구열강의 침탈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및 ‘중국인’이라는 강렬한 자의식이 형성되던 19세기말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김경국 외, 2003). 이처럼 한국화교는 다른 나라의 화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민족의식 - 중국이란 국가와 민족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한국화교 청소년들이 한국 청소년보다 높은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중화사상이 중국 조선족과 화교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중국 조선족과 화교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난 것이 반드시 중화사상만의 영향으로 설명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따라서 후속되는 연구에서는 이들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한국 청소년보다 높은 이유에 대한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설계가 요구된다.

둘째, 화교, 중국 심양조선족, 한국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인 또래, 교사의 상대적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화교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아개념 하위영역에서 또래의 영향이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 심양조선족에서는 교사의 영향이 대부분의 자아개념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청소년의 경우, 또래와 교사의 영향이 자아개념 하위영역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한국의 화교학교는 대만계 중국인이 설립한 것으로 화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입학할 수 있고, 본토 중국인이 설립한 화교학교는 없으며 전부 대만정부에 학교로 정식 등록되어 있지만, 한국 내에서는 이들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IMF 이후 한국정부는 모든 외국인 학교를 ‘각종학교’로 등록하도록 했는데, 화교학교가 한국법상의

학교로서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종 교육 법상의 학력인정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아직 까지 공식적으로 학력을 인정받은 화교학교는 한곳도 없는 상태이다(이윤희, 2004). 이처럼 학교의 지위가 안정되지 못하고 학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환경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미비할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중국 조선족의 경우, 교사가 학생들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지한 선행연구들(이사라·박혜원, 2005; Marsh, 1990; Woolfolk, 1995)의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이사라·박혜원(2005)의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으로 부모, 교사, 또래를 넣어 회귀 분석 한 결과, 중국 조선족 청소년의 경우 교사와 부모의 영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제한으로 인해 부모변인을 제외한 교사와 또래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 교사의 영향이 자아개념 전반에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중국 조선족 청소년의 경우 일관되게 또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나타난 이유는, 중국의 문화적 특성에서 이해될 수 있다. 중국사회는 자녀가 사회화되는 청소년 시기에 부모와 어른을 존경하고 순종하며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한 가치관으로 형성 되는데, 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화시기에 부모나 어른에게 도덕적인 순종의 전통을 배우고 가족의 지지가 중요한 자원으로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Fuligini et al., 2002). 유럽계 미국 청소년과 중국 청소년을 비교한 연구결과에서도(Fuligini, 1999), 중국 청소년들이 사춘기 시기에 유럽계 미국인 청소년보다 친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중국의 문화적 특성은 또래 동류집단의 영향력보다는 가족과 어른에 대한 순종과 그들의 가치관에 순응하는 경향을 보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치관은 청소년 시기

에 또래의 영향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게 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조선족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에 교사의 영향이 큰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청소년의 경우, 자아개념 전반에 교사와 또래의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 청소년의 진학률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중학교 진학률이 99.9%, 고등학교 진학률이 99.5%로,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이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있어 학교는 중요한 성장 환경이며, 그들에게 학교생활의 주된 환경적 변인인 또래와 교사는 청소년 발달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최지은·신용주, 2003). 또한 한국 청소년은 청소년 초기에서 중기 및 후기로 나아가감에 따라 아동기에 비해 친구의 사회적 지원과 친구관계가 점차 더욱 중요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박영신·김의철, 2003), 교사는 청소년의 성취행동과 일탈행동 등 전반적인 발달영역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신·김의철, 2004). 따라서 한국 청소년들은 학업문제 등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성적,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 상대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의 모든 청소년 집단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박영신·김의철·김묘성, 2002).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 청소년들의 자아개념 발달에 또래와 교사가 대등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 삶의 대부분이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교생활에서 주된 상호작용하는 대상이 또래와 교사라는 점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화교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최근야 비로소

시작되었고 따라서 화교에 대한 정보가 매우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한국의 반동화정책은 한국인들에게 폐쇄적으로 임하는 화교사회의 태도를 만들었고, 이러한 태도는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주었다. 따라서 화교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최근야 비로소 시작되었고, 화교에 대한 연구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 심도 있는 논의는 미흡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제화를 제창하고 중국의 비중이 날로 증대해지는 이 시점에서 화교 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적 연구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화교에 대한 연구는 시대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며, 화교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시대적 관심에 부합된(예를 들어, 1970년대 화교연구는 그 당시 한국의 시대적 관심인 반공과 민족에 관련된 연구가 많음 - '중공의 동남아 화교정책에 관한 연구' 등) 연구들이 간헐적으로 있었으나(김경국 외, 2003), 후속 연구에서는, 중국의 화교연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입체적인 학술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화교자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중국 조선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또한 지속되어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북한과의 가교역할에 필요한 실제적인 자료가 뒷받침 될 수 있어야 하겠다.

## 참 고 문 헌

구자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국 · 최승현 · 이강복 · 최지현(2003). 한국의 화교 연구 배경 및 동향분석. **중국인 문화회**, 26, 495-

516.  
 박민정 · 박혜원(2005). 연변 조선족 아동의 공격성과 개인적 특성, 가정환경 및 학교 환경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10), 141-153.  
 박영신 · 김의철 · 김묘성(2002). IMF시대 이후 초, 중, 고, 대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양식 및 사회적 지원 :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8(2), 105-135.  
 박영신 · 김의철(2003).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9(1), 81-114.  
 박영신 · 김의철(2004).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 학생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0(1), 87-115.  
 박혜원 · 원영미 · 이귀옥(2003). 이중언어 사용이 선택적 주의에 미치는 영향 : 연변 조선족과 한족 아동의 선택적 주의수행 비교, **이중언어학회지**, 23(1), 113-135.  
 박혜원 · 이사라(2005). 부모, 또래 및 교사가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화적 비교연구 : 한국과 중국 심양 조선족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6(1), 181-194.  
 송인섭(1998).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학지사.  
 이귀옥 · 전효정 · 박혜원(2003). 중국 조선족 아동의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 발달과 영향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연구모형.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9(2), 181-213.  
 이귀옥 · 전효정 · 박혜원 · 강완숙 · 장미자(2004). 중국 조선족 아동의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7(1), 113-129.  
 이사라 · 박혜원(2005). 부모, 또래 및 교사가 아동 및 청소년 자아개념발달에 미치는 영향 : 중국 조선족과 한국 아동 및 청소년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3(4), 169-183.  
 이성규(1992). 민족주의의 철학적 성찰 : 중화사상과 민족주의. **한국철학회 : 철학**, 31-67.  
 이윤희(2004). 동북아시아 인천거주 화교의 인권실태

- 및 정체성.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 201, 6(2), 5-34.
- 장수현(2001). 한국화교의 사회적 위상과 문화적 정체성. **국제인권법**, 4, 1-30.
- 전우용(2003). 한국 근대의 화교문제. **고려사학회**, 15, 376-395.
- 조복희 · 박태수 · 한세영(2004). 문화접변 유형에 따른 조선족 청소년의 적응 : 심양과 할빈을 중심으로. **가정관리학회지**, 22(5), 113-122.
- 조복희 · 박혜원 · 이사라 · 이주연 · 박민정(2005). **중국 조선족 아동의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발달과 영향요인 : 사회성 및 정서발달과 사회적 영향요인의 분석**. 부산 : 서림출판사.
- 조복희 · 이귀옥 · 박혜원 · 이주연(2005). 중국 조선족 가정의 문화접변 실태 : 연변지역과 심양/할빈지역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8), 37-54.
- 조복희 · 이주연(2005). 부모와 별거하는 중국 조선족 아동의 생활환경과 적응문제. **아동학회지**, 26(4), 231-245.
- 최지은 · 신용주(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10.
- Cooley, C. H.(191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 Scribner.
- Fromm, E.(1949). Sex and character. In Anshen, R.(Ed.), *The family : Its function and destiny*. New York : Harper, 375-392.
- Fulgini, A. J., Tseng, V., & Lam, M.(1999). Attitudes toward family obligations among American adolescents with asian, latin american, and european backgrounds. *Child Development*, 70, 1030-1044.
- Fulgini, A. J., Yip, T., & Tseng, V.(2002). The impact of family obligation on the daily activit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nese Americ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73, 302-314.
- Hare, B. R.(1985). *The Hare general and area-specific (school, peer, and home) self-esteem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Sociology, SUNY Stony Brook, New York.
- Harter, S.(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E. M. Hetherington & P. H. Mussen(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p. 275-385). New York : Wiley.
- Harter, S.(1988). The construction and conversation of self : James and Cooley revisited. In D. K. Lapsley & F. C. Paower(Eds.), *Self, ego and identity : Integrative approaches*. New York : Springer-Verlag, 42-70.
- Horney, K.(1950). *Neurosis and human growth*. New York : W. W. Norton.
- Marsh, H. W., Barnes, J., Cairns, L., & Tidman, M. (1984). The self description questionnaire(SDQ) : Age and sex effects in the structure and level of self-concept for pre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940-956.
- Marsh, H. W.(1990). A multidimensional, hierarchical model of self-concept : Theoretical and empirical justification.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 77-172.
- Woolfolk, A. E.(1995). *Educational Psychology*. Boston : Allyn and Bacon.

2005년 12월 31일 투고 : 2006년 3월 14일 채택

## 부 록

〈표 1〉 화교청소년의 각 변인 간 상관관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1. 또래친밀성  | 1     |       |       |       |       |       |       |     |   |
| 2. 또래수용성  | .43** | 1     |       |       |       |       |       |     |   |
| 3. 교사의지지  | .23** | .18** | 1     |       |       |       |       |     |   |
| 4. 교사의평가  | -.08  | .17*  | .22** | 1     |       |       |       |     |   |
| 5. 외모자아개념 | .08   | .26** | .15*  | .20** | 1     |       |       |     |   |
| 6. 운동자아개념 | .05   | .14*  | -.09  | .09   | .21** | 1     |       |     |   |
| 7. 학업자아개념 | .11   | .10   | .04   | .12   | .31** | .38** | 1     |     |   |
| 8. 행동자아개념 | .18*  | .22** | .18*  | -.01  | .30** | .10   | .20** | 1   |   |
| 9. 자기가치감  | -.04  | .27** | .01   | .27** | .43** | .15*  | .15*  | .14 | 1 |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중국심양조선족의 각 변인 간 상관관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1. 또래친밀성  | 1     |       |       |      |       |      |       |      |   |
| 2. 또래수용성  | .09   | 1     |       |      |       |      |       |      |   |
| 3. 교사의지지  | .28** | -.12  | 1     |      |       |      |       |      |   |
| 4. 교사의평가  | -.03  | -.02  | .08   | 1    |       |      |       |      |   |
| 5. 외모자아개념 | .04   | -.15  | .38** | .12  | 1     |      |       |      |   |
| 6. 운동자아개념 | -.06  | -.07  | .07   | .16  | .22*  | 1    |       |      |   |
| 7. 학업자아개념 | .14   | -.20* | .20*  | .16* | .50** | .10  | 1     |      |   |
| 8. 행동자아개념 | .20*  | .01   | .26** | .11  | .61** | .15  | .39** | 1    |   |
| 9. 자기가치감  | .02   | -.01  | .08   | .20* | .47** | .21* | .19*  | .43* | 1 |

\* $p < .05$  \*\* $p < .01$  \*\*\* $p < .001$

〈표 3〉 한국 청소년의 각 변인 간 상관관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1. 또래친밀성  | 1     |       |       |       |       |      |       |       |   |
| 2. 또래수용성  | .38** | 1     |       |       |       |      |       |       |   |
| 3. 교사의지지  | .36** | .06   | 1     |       |       |      |       |       |   |
| 4. 교사의평가  | .18** | .12*  | .22** | 1     |       |      |       |       |   |
| 5. 외모자아개념 | .06   | -.12* | .25** | .05   | 1     |      |       |       |   |
| 6. 운동자아개념 | -.08  | -.10  | -.01  | .02   | .15** | 1    |       |       |   |
| 7. 학업자아개념 | .15** | -.04  | .14*  | -.02  | .34** | .13* | 1     |       |   |
| 8. 행동자아개념 | .18** | .14*  | .14*  | .16** | .29** | .03  | .29** | 1     |   |
| 9. 자기가치감  | .22** | .06   | .22** | .26** | .33** | .13* | .31** | .35** | 1 |

\* $p < .05$  \*\* $p < .01$  \*\*\* $p < .001$